정보관리연구, vol.40, no.1 2009, pp.29-46

학위논문 이용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Users' Perception on Theses and Dissertation Services

신 유 리** · 정 은 경***
Yu-Ri Shin · Eun-Kyung Chung

차 례

1. 서 론
2. 학위논문의 특성
3. 학위논문의 제공현황
4. 학위논문의 이용현황
5. 학위논문 서비스 개선 방안
6.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초 록

학위논문은 중요한 학술자원이나, 출판 및 유통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검색, 접근, 입수, 활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5개 기관 및 6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학위논문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학위논문 제공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학위논문을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개의 학위논문 제공서비스 중에서 국회도서관과 RISS 서비스가 높은 인지도와 사용률을 나타냈으며, 이용자들은 제목과 저자 이외에도 키워드, 원문제공 여부, 학과, 초록, 목차 등의 정보원을 중요한 검색항목으로 사용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위논문의 원문제공 여부이며, 원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처에 대한 링크 또는 안내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학위논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공서비스의 홍보와 다양한 서지정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위논문의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키 워 드

학위논문, 이용자 연구, 설문조사, 개선방안

---

* 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Graduate Student,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bigbog@naver.com)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echung@ewha.ac.kr)

• 논문접수일자 : 2009년 2월 15일
• 게재확정일자 : 2009년 3월 2일

ABSTRACT

Theses and Dissertation(TD) have been considered one of valuable scholarly resources, while there have existed some limitations to collect, organize, and provide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users' perception on six TD services from five institutions and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Six TD services includes National Library, National Assembly Library, RISS, dCollections, NDSL, and Council of Theses and Dissertation Common Use. Based on the survey results from 151 us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dentified that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RISS were preferred by users. In addition, users preferred keyword, full text, department, abstract, table of contents, as well as title and author over other bibliographic information. More importantly, users needs were placed on whether specific TD services provide full text or not. In case that is not possible to provide full text, users have a preference for full text link information. As a result, in order to improve the TD services, service promotion activities, diverse access points, and full text provision are desirable.

KEYWORDS

Theses and Dissertation, User Studies, Survey-based User Studies, Improvement Issues

1. 서론

학위논문은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학 학술정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학위논문의 디지털화가 미래 대학의 품질을 좌우한다”(Edminster et al. 2002)고 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된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정보 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학위논문 역시 웹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학위논문의 디지털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상당수의 대학이 인쇄본과 더불어 전자 형태로 학위논문(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ETD)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학위논문의 관리 주체, 제출 시스템, 파일 포맷(File Format), 저작권, 아카이빙(Archiving), 온라인 접근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최근 10여 년간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학위논문의 전자형태 및 제출, 제공시스템의 표준을 통일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총괄하는 국가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정동열, 김성희 2001; 윤희윤 외 2003; 남영준 2005).

그러나 학위논문과 관련된 이러한 제반 문제의 인식에 근거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들은 제공자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조인숙 1993). 또 단일 기관을 중심으로 한 학위논문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국내 학위논문 제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학위논문의 검색과 활용을 위해 국내 5개 기관의 학위논문 제공서비스[1)]에 대해서 이용자 입장에서의 현황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학위논문 이용 경험이 있는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위논문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위논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는 그 의의가 있다.

2. 학위논문의 특성

학위논문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학위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학술논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출하는 논문', 학위 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논문', 대학원생이 일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학 당국이나 연구기관에 제출하는 논문'(윤희윤 2004a; 윤희윤 2004b)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듯이 학위논문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놓는 지적성과물이다.

학위논문은 연구자 개인에게 있어서 뿐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자원이다. 2007년 dCollection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중 3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서 학위논문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체 자료유형 중 78.2%를 차지하여 학술자료 중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주요 정보원임을 알 수 있다(김세주 2007). 다양한 학술정보 중에서도 학위논문은 대학 학술정보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원이며, 학교라는 공식기관에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공인된 학술정보라 할 수 있다(정동열, 김성희 2001).

지적성과물이라는 점에서는 학위논문 역시 여타의 다른 정보와 같지만 학위논문은 학위수여와 관련된 정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차별화 된 특성을 가진다. 첫째, 학위논문은 각 분야의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학위논문 작성자는 공부를 업으로 하는 학생이며, 학위논문을 활용하는 사람들 역시 각 분야의 연구자이거나 전문가들인 경우가 대

1)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및 dCollecti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 한국 학위 논문 원문 공동 이용 협의회

부분이다(이석호 2003). 둘째, 학위논문의 내용은 최신성 및 독창성을 가진다(조인숙 1993). 셋째, 학위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공인 받은 정보이다. 넷째, 학위논문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존 지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다룬 일차 정보원으로서 참고자료로 널리 이용 된다(조인숙 1993; 윤희윤 외 2003; 남영준 2005). 다섯째, 학위논문은 상업성을 가지지 않는다. 학위논문은 대학의 동결자산'으로서 보관이나 기념을 목적으로 소수의 책만을 인쇄하여 보관할 뿐 책으로 출판하여 일반에 배포되지 않는다(윤희윤 외 2003). 여섯째, 학위논문은 공식적인 유통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회색문헌이다. 일곱째, 학위논문은 연구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윤희윤 외 2003).

이와 같이 학위논문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학위논문은 관련 분야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1차 정보원인 동시에, 그 선행 연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차 정보원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유통이 어려운 회색문헌이라는 특성상, 널리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위논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학위논문의 유통에 있어서 중요하다.

3. 학위논문의 제공현황

3.1 학위논문의 수집현황

국내 학위논문 제공처의 학위논문의 수집현

〈표 1〉 국내 학위논문 제공시스템의 학위논문 수집현황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RISS	dCollection	NDSL	학공협
수집 시기	1946년 이후	1945년 이후	1989년부터 수집 시작 (소장범위: 학교마다 상이)	2004년부터 수집 시작 (소장범위: 학교마다 상이)	1980년부터 수집 시작 (제공범위: 1945년 이후)	2004년부터 수집 (소장범위: 학교마다 상이)
수집 분야	모든 분야	모든 분야 (제공 : 인문 사회분야 중심)	모든 분야	모든 분야	과학 공학	모든 분야
수집 방법	납본, 기증	납본, 기증	기증, dCollection 서버와 연동	각 대학에서 dCollection 서버를 통하여 원문제공	국회도서관 연동하여 제공	협력 대학의 DB와 연동하여 제공
인쇄본(건)	607,547건 (석사 563,541, 박사 44,006)	975,336	×	×	×	×
목록 DB (건)	607,547	1,117,733	약 69만	약 68만	1,097,904	223,164
원문 DB (건)	7,816	562,796 (저작권허락 219,785/ 미허락 343,011)	69만 (보유:약28만 연계:약41만)	약 68만	28,971	223,164

황은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학위논문의 수집 시기를 살펴보면, 납본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과 연동서비스를 진행 중인 NDSL에서는 건국 이후의 장서부터 학위논문에 대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RISS, dCollection, 학공협 등의 기관은 대학의 서버와 연동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대학의 학위논문 수집과 제공에 따라 수집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수집 분야에 있어서는 과학 분야를 특화 서비스 하고 있는 NDSL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전 분야에 대한 수집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의 경우 인쇄본과 서지 목록은 전 분야의 학위논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전자원문은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 RISS, dCollection, 학공협의 경우는 모든 분야를 수집하고 있기는 하나, 수집 시기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에서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분야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경우, 주로 납본을 통해 학위논문을 수집하고 있고, RISS는 기증과 dCollection과의 연동, NDSL은 국회도서관과의 연동, dCollection과 학공협은 협력 대학과의 DB 연동을 통해 학위논문 서지 및 원문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납본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학위논문을 제공하는 것은 대학 리포지터리에서 전자학위논문 구축 및 연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는 인쇄본과 전자본을 소장하고 있으나 다른 제공시스템에서는 전자본만을 소장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목록과 원문의 소장 비율이 달랐는데, 2008년 현재 국회도서관(111만7,733건)에서 가장 많은 목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회도서관과 DB연동을 통해 목록을 제공하는 NDSL(109만7,904건)의 목록이 많았다. RISS(약 69만 건)와 dCollection(약 68만 건), 국립중앙도서관(60만7,547건)의 목록DB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학공협(223,164건)이 가장 적은 목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원문의 경우, RISS가 가장 많은 양을 제공하고 있었다. RISS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원문은 28만 건이지만 dCollection과의 연계를 통해 41만 건을 제공하고 있어 총 69만 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대학과 직접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dCollection(약 68만 건), 국회도서관(56만2,796건), 학공협(22만3,164건) 순으로 전자원문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전자학위논문 원문 수집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NDSL (22만3,164건)과 국립중앙도서관(7,816건)은 다른 제공시스템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원문수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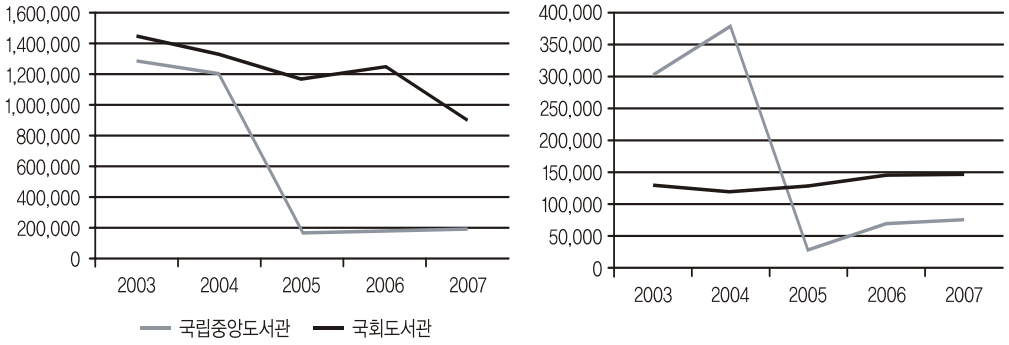
3.2 학위논문의 이용추세

학위논문의 이용현황은 학위논문 이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RISS의 세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인쇄본 학위논문의 경우는 국립중앙도서

관과 국회도서관의 이용현황을, 전자학위논문의 경우는 국회도서관과 RISS의 현황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인쇄본 학위논문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열람 수와 이용자 수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의 경우 이용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열람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전자학위논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RISS와 국회도서관 모두에서 전자학위논문 활용이 높아지고 있었다. RISS는 2002년에 비하여 2007년에 검색 수는 6배, 원문 다운로드 수는 12배 정도 증가하였고,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접속 수를 살펴보면 2003년(348만9,062건)에 비하여 2007년(1101만 3,942건)까지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기관의 2007년과 2008년 검색 수와 원문 조회 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RISS와 국회도서관 모두 2007년에는 700만 건 이상의 학위논문 원문 조회를 했으며, 2008년 9월 기준 500만 건 이상의 원문 조회를 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국회도서관의 인쇄본 학위논문의 열람 수(91만2,582건)와 전자본 학위논문 원문 조회 수(828만7,454건)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전자학위논문의 이용이 약 9배 많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3.3 학위논문의 제공현황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dCollection



〈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연도별 열람 수(좌)와 이용자 수(우)

〈표 2〉 RISS와 국회도서관의 연도별 학위논문 원문 조회 수

(기준: 2008년 9월 30일)

연도	2007	2008
RISS(건)	7,062,000	6,065,000
국회도서관(건)	8,287,454	5,590,165

〈표 3〉 국내 학위논문 제공시스템의 학위논문 제공현황

구분	국립중앙 도서관	국회도서관	RISS	dCollection	NDSL	학공협
사이트	www.nl.go.kr	www.nanet.go.kr	www.riss4u.net	www.dcollection.net,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www.ndsl.kr	http://thesis.or.kr/
이용대상	일반	일반	소속/일반 구분	일반	협정기관 이용자, 유료가입자	협정기관 이용자
이용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원문포맷	PDF, TIFF	SGML, TIFF	PDF	PDF	DVI, PDF	PDF, TIFF
협력기관	567 (대학: 127)	945 (원문 조회 가능:473)	493 (대학: 235)	189	452	161

은 일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며, RISS는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관 소속 이용자와 차등을 두고 있었다. NDSL과, 학공협의 경우는 협력기관의 소속 이용자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dCollection의 경우 일반을 대상으로 가입을 받고 있지만 대학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이므로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소속기관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제공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학위논문의 제공 방법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인쇄본과 전자본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은 모두 전자학위논문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모든 기관에서 전자학위논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전자학위논문의 포맷은 PDF였으며, 그 다음으로 TIFF 파일이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협력기관 내에서의 전자원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고, NDSL은 협정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원문복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RISS와 dCollection은 연동 서비스라는 특성상 협력 기관의 정책에 따라 전자원문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학공협의 경우 ID가 아닌 IP를 통하여 서비스에 제한을 두었다(〈표 3〉 참조).

3.4 학위논문의 이용 방법

국내 학위논문 제공시스템에서 학문 검색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시스템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검색 히스토리는 국립중앙도서관과 dCollection에서, 소장처에 관한 정보는 RISS와 NDSL에서 지원하여 각각 두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

었다. 서지정보 반출서비스와 내책장서비스는 RISS에서, 알리미 서비스는 NDSL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피드백 기능인 도움말과 문의게시판은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였으나 학공협에서는 도움말을, dCollection에서는 문의게시판을 지원하지 않았다(〈표 4〉 참조).

학위논문 검색 시 활용 가능한 검색항목을 살펴보았다. 모든 제공시스템에서 제목, 저자, 주제어(키워드), 발행기관, 발행연도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문 유무(5)와 학위수준(5), 학과 및 전공(4)에 관한 검색을 지원하는 제공시스템도 많았다. 저작권 동의 여부, 목차는 3개 기관, 초록, 언어분류기호는 2개 기관, 지도교수, 시소러스, 청구기호 검색은 각각 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검색 후 학위논문의 활용법을 온라인 지원과 오프라인 지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전자학위논문을 이용할 경우, 인쇄는 모든 기관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저장은 RISS, dCollection, NDSL 세 기관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서지정보 반출 기능은 RISS에서만 지원하였다. 전자원문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상호대차와 원문복사, FAX 서비스가 있다. 원문복사는 전자원문만을 지원하는 dCollection과 학공협을 제외한 모든 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 중 NDSL을 제외하고는 FAX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상호대차는 RISS에서만 지원하는 서비스로 소속 그룹 간 상호대차만 지원하므로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없다.

제공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원문복사와 FAX, 상호대차 활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원문복사와 FAX, 상호대차를 신청할 경우, 학위논문 이용의 범위에 제한이 있고, 전자본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쓰인다.

학위논문은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원문복사를 1/3 이나 1/2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FAX도 1인당 10쪽 이내로 분량을 제한하고 있다. 시간 면에서 보면 원문복사나 상호대차의 경우, 특급 우편으로 신청

〈표 4〉 국내 학위논문 제공시스템의 학위논문 검색 지원 서비스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RISS	dCollection	NDSL	학공협
검색 지원	검색 히스토리	○	×	×	○	×	×
	내책장서비스	×	×	○	×	×	×
	알리미 서비스	×	×	×	×	○	×
	소장처 제공	×	×	○	×	○	×
이용자 피드백	도움말	○	○	○	○	○	×
	문의게시판	○	○	○	×	○	○

한다고 해도 적어도 2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일반 우편의 경우 길게는 7일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FAX를 신청하는 경우, 국회도서관은 당일에 FAX를 제공하지만 다른 기관에선 2-3일의 기간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위논문을 입수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살펴보면, 배송료로 인하여 최소한 3,000원 이상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100장짜리 논문을 본다고 했을 때, 상호대차를 통해 빌린다면 배송료에 기본비용(100원)을 더한 5,600-6,700원 사이의 비용이 들며, 복사를 한다면 최소한 배송료(3,000원)와 복사비(1,000 * 60원)까지 9,000원의 비용을 써야 한다. RISS는 소속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NDSL에서는 이용 대상을 소속기관 이용자로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소속기관이 없는 이용자는 RISS나 NDSL에서 이용에 제한을 두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에서는 활용 범위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학위논문 이용현황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1부의 설문 결과를 취합하였다. 이러한 설문 대상은 최근 학위논문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위논문의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문 조사는 2008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현장 설문과 이메일을 병행하여 총 180부를 배포하였다. 이중 현장 설문은 130부에서 128부, 이메일은 50부 중 29부가 회수되어 87.2%(157부)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답변이 다 작성되지 않은 6부를 제외하고 151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22문항으로써 학위논문 이용 일반에 대한 내용(3 문항), 학위논문 제공처로의 접근(2 문항), 학위논문 제공처의 이용(3 항목), 학위논문 검색(5 항목), 학위논문 활용에 대한 내용(3 항목), 응답자 배경(6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전공 및 학년 등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44명(29%), 여성 107명(71%)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20대 91명(60%), 30대 51명(34%), 40대 8명(5%), 50대 1명(1%)으로 인터넷 환경과 이용에 익숙한 이삼십 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학년은 석·박사학위논문을 쓴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로 구분하기 위하여 석사 재학 및 수료생, 석사 졸업생, 박사 재학 및 수료생, 박사 졸업생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자는 석사 재학 및 수료생이 93명(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박사 재학 및 수료생 37명(25%), 석사 졸업생 17명(11%), 박사 졸업생 4명(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공은 사회(22%), 공학(21%), 자연(18%), 인문(15%), 의약학(9%), 교육학(8%), 예술 체육(7%) 등으로 고루 분포하였다.

4.1 학위논문 이용 요인

이용자들에게 학위논문을 이용하는 요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표 5〉와 같은 분포가 조사되었다. 학위논문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36.7%)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공 영역에 관한 연구(27.0%)와 전공 관련 최근 동향 파악(19.0%) 등으로 나타나 전공 영역에 대한 참고 자료로 널리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학습(10.0%)이나 지적 호기심(6.3%) 등 개인적인 흥미를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즉, 논문 작성 및 연구를 위한 직접적인 이용 요인이 전체의 63.7%를 차지하며, 나머지 이용 요인은 잠재적인 이용 요인으로서 동향 파악이나 개인 학습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학위논문 제공처로의 접근

〈표 6〉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위논문 제공처에 대한 인지 과정에 관한 설문 응답이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위논문 제공처의 인지 경로에 대해서는 동료 연구자나 지인의 도움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31.9%)가 가장 많았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인터넷 검색(31.1%)이 그 뒤를 이었다. 학위논문의 제공처 인지 경로는 60% 이상이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서관 교육이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18.9%, 학교 수업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10.7%로,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28.6%)는 비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63%)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스스로 책이나 기사 등의 참고 자료를 찾는다는 의견이 6.3%가 있었으며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0.7%로 매우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기타의 경우로는 학교 홈페이지의 연결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5〉 학위논문 이용 요인

이용 요인	응답수(명)	비율(%)
논문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110	36.7
전공 영역에 관한 연구	81	27.0
전공 관련 최근 동향 파악	57	19.0
개인 학습	30	10.0
지적 호기심	19	6.3
기타	3	1.0
계	300	100.0

*복수응답항목

〈표 6〉 학위논문 제공처 인지 경로

인지 경로	응답수(명)	비율(%)
동료 연구자 등	86	31.9
인터넷 검색	84	31.1
공식적인 교육	51	18.9
수업 등	29	10.7
참고자료 등	17	6.3
사서 등	2	0.7
기타	1	0.4
계	270	100.0

*복수응답항목

4.3 학위논문 제공처 인지 및 이용현황

학위논문 이용자들이 어떤 제공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알고 있는 제공처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제공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율과 실제 사용률을 비교하여 보았다(〈표 7〉 참조). 이용자들이 학위논문의 제공 여부를 알고 있는 제공시스템의 1위부터 3위는 국회도서관(24.0%), RISS (20.2%), 국립중앙도서관(1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제공처에 있어서도 1, 2위는 각각 국회도서관(25.7%)과 RISS(21.4%)가 차지하여 알고 있는 제공시스템의 순위와 큰 변화는 없었지만 3위는 국회도서관이 아니라 모교를 이용하는 비율(21.1%)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1.8%, 1.1%의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국회도서관과 RISS는 알고 있는 비율보다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알고 있는 비율보다 사용 비율이 3.4%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학위논문 제공처 인지 및 사용비율

	인지(명)	비율(%)	사용(명)	비율(%)
국회도서관	117	24.0	100	25.7
RISS	99	20.2	83	21.4
국립중앙 도서관	92	18.8	60	15.4
모교	90	18.4	82	21.1
NDSL	32	6.3	20	5.1
dCollection	31	6.5	20	5.1
학공협	14	2.9	7	1.8
기타	14	2.9	17	4.4
계	489	100.0	389	100.0

*복수응답항목

이러한 인지 및 사용 비율을 이용자의 전공분야별로 살펴보았다. 인문, 사회, 공학 분야에서는 종합 순위와 마찬가지로 국회도서관이 인지율과 사용률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자연과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RISS가 가장 높은 인지율과 사용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았으나 실사용에 있어서는 RISS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의약학 분야에서는 모교 제공시스템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모교 제공시스템의 인지율보다 사용률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학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제공시스템별로 봤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은 공학과 교육 쪽에서 인지율(각각 25.0%, 24.5%)과 사용률(20.0%, 2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두 분야에서 모두 알고 있는 비율보다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도서관은 모든 분야에서 20% 이상의 사용률과 인지율로 매우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사회 영역(29.0%)의 사용률이 다른 분야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ISS의 경우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20% 이상의 인지율과 사용률을 보여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공학 영역(15.0%)과 의약학 영역(18.2%)의 사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dCollection과 NDSL, 학공협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10% 이하의 인지율과 사용률을 보여 낮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었다. dCollection의 경우에는 인문학의 인지도(12.0%)와 사용률(12.7%)이 모두 10%를 상회하여 인문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었으며, NDSL은 공학 분야(11.9, 11.7%)와 예술 분야(10.8, 10.7%)에서 인지율과 사용률이 높았다. 예술 분야에서 dCollection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은 체육 분야 관련 전공자들이었다. 학공협의 경우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인지도와 사용률이 떨어졌다. 모교의 경우는 인지율과 사용률이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논문 제공시스템에 대한 기타 응답으로는 한국학술정보원, DBpia 등 사설 학술정보 제공처와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자연과 공학, 의학 분야에서는 검색을 안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8〉 학위논문시스템의 만족도

구분	총평균
친숙함	2.8
화면 구성	2.3
서지정보 제공량	2.7
자료 업데이트	2.4
원문제공량	2.3
원문 활용의 편리성	2.5
주제 적합성	2.5
시기 적합성	2.2
검색 속도	2.3
검색결과의 정확성	2.2
검색 내용의 일치도	2.2
도움말 제시	1.8
이용자 피드백	1.7
기타 이용 서비스	2.0
전반적인 만족도	2.5
평균	2.3

*복수응답항목

자신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만족도 조사의 문항은 검색과정과 검색결과, 검색지원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용자가 가장 즐겨 찾는 학위논문 제공시스템들에 대한 모든 만족도의 평균을 내면 5점 만점에 2.3으로 중간(2.5)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도 평균이 3점을 넘지 못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을 느낀 항목은 '친숙함'(2.8)이었고, 그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서지정보 제공량'(2.7)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스템에서 '친숙함'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서지정보 제공량'은 모든 시스템에서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 꼽혔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국회도서관이 친숙함(2.9)과 서지정보 제공량(2.8)에 있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제공시스템이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이용자 피드백'이 1.7로 가장 낮았고 '도움말 제시'가 1.8, '검색 활용을 위한 지원서비스' 2.0으로 그 뒤를 이었다.

4.4 학위논문의 검색

학위논문을 검색 시 66.4%의 이용자들이 단

순검색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상세검색을 활용하는 비율은 26.6%였으며, 학과나 주제검색을 선호하는 이용자는 6.2%를 차지했다. 이용자들이 학위논문 검색 시 사용하는 검색 항목으로는 '주제어(키워드)' 검색(42.0%)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제목'(17.8%)이나 '저자'(16.2%) 등 기본검색 항목이 그 뒤를 이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 다음 항목이 '원문제공 여부(6.8%)'로 검색 시 원문의 활용 여부가 중요한 접근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한편 이용자들이 학위논문 검색 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추천하는 검색항목을 살펴보았다. 〈표 11〉에서 주로 이용하는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제어'(43.1%)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주요한 검색 요소였다. 하지만 2위를 차지한 항목은 '원문제공 여부'(12.6%)로 이를 통해 학위논문 검색 시 원문제공 여부가 이용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학위논문 검색 시 '주제어', '원문제공 여부'이외에 실제 이용하고 있는 비율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으로는 초록, 목차, 발행처, 학과 등이 있었다.

〈표 9〉 학위논문의 검색 방법

	응답수(명)	비율(%)
단순검색	100	66.4
상세검색	40	26.6
학과/주제검색	9	6.2
기타	2	0.8
계	151	100.0

*복수응답항목

〈표 10〉 주로 이용하는 학위논문 검색항목

	응답(명)	비율(%)
주제어(키워드)	130	42.0
제목	55	17.8
저자	50	16.2
원문제공 여부	21	6.8
연도	14	4.5
발행처	8	2.6
초록	8	2.6
학과	8	2.6
목차	7	2.3
석/박사 구분	7	2.3
지도교수	1	0.3
저작권 여부	0	0.0
계	309	100.0

*복수응답항목

〈표 11〉 이용자 추천 학위논문 검색항목

	응답(명)	비율(%)
주제어(키워드)	123	43.1
제목	14	4.9
저자	33	11.6
원문제공 여부	36	12.6
연도	12	4.2
발행처	11	3.9
초록	21	7.4
학과	11	3.8
목차	10	3.5
석/박사 구분	7	2.5
지도교수	4	1.4
저작권 여부	3	1.1
계	285	100.0

*복수응답항목

4.5 학위논문의 활용

학위논문을 검색한 후 검색결과를 이용할 때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다운로드를 받아 저장하는 것'(44.6%)이었으며 그 뒤를 이은 것이 인쇄'(36.0%)였다. 이 두 방법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화면으로 읽는 것'(16.3%)이었으며 그 이외의 방법들이 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학위논문의 원문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원문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32.9%)였다(〈표 12〉 참조). 그리고 지정된 장소 안에서만 활용하게 하는 것 역시 2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인쇄의 제한'(18%)이나 저장의 제한'(16%)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원본이 있음에도 뷰어 설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5%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저작권 제한 때문에 활용하기 힘들다는 경우와 유료 정보인 경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2〉 학위논문 활용 시 어려움

	응답수(명)	비율(%)
원문 미 구축	78	32.9
지정된 장소로만 제한	63	26.6
인쇄의 제한	43	18.1
저장의 제한	39	16.5
뷰어 설치의 어려움	11	4.6
기타	3	1.3
계	237	100.0

*복수응답항목

이에 따라서 학위논문 이용 시 가장 불편을 겪는 요소로 밝혀진 원문의 미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자들은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찾고자하는 자료의 원문이 없을 경우, 자료의 활용을 포기'(48.9%)하는 경우가 절반이나 됨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직접 학위논문 인쇄본의 납본처인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찾아가는 경우' (16.1%)와 원문복사 신청'(15.4%)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상호대차를 신청하는 경우'(9.8%)와 직접 해당학교를 찾아가는 경우'(7.7%)도 적지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거나 본인의 학교 도서관에 문의한다는 것이 있었다. 위의 문항에 대해 학위논문 원문 미 구축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70명)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절반 이상의 이용자들이 시간 지연'(55.7%)이 자료 입수 포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소요되는 비용'(14.3%) 때문에 자료를 포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체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12.9%)와 전자 자료만 활용한다'(10.0%)는 응답자도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다른 방법을 몰라서 자료를 포기하는 경우(4.3%)도 있었으며 귀찮기 때문이라는 의견(2.8%)도 있었다.

4.6 학위논문 이용 시 문제점

이용자들이 학위논문을 이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용자들이 학위논문 이용 시의 어려움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원문 이용의 제한(41.0%)이었다. 학위논문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없다는 것(18.0%)도 응답자의 1/5을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고, 찾고자하는 자료가 없어서 어렵다(13.1%)는 경우도 많았다. 자료 검색의 방법(9.5%)이나 자료 검색이 가능한 곳을 찾지 못하여(7.4%) 어려움을 겪은 이용자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학위논문 검색 시, 이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학위논문의 소장처' (27.3%)였다. 이는 학위논문의 전자원문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학위논문에 관한 정보 요청'(21.3%)이 많았으며, 학위논문 인용 통계'(17.7%)와 학위 주제별 브라우징'(17.0%), 학위논문 이용 통계' (9.7%)가 그 뒤를 이어 연구를 위해 필요한 학위논문에 대한 접근점을 높이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학위논문 활용 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 (26.0%)이었으며, 이를 통해 학위논문에 대한 One-stop 검색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꼽은 검색 히스토리 서비스'(21.8%) 역시 2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알리미 서비스'(18.7%), 내책장 서비스'(18.3%), 서지정보 반출 서비스'(15.2%)가 비슷한 비율로 나란히 그 뒤를 이었다.

학위논문의 이용 개선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는 문항에서는 원문 이용의 제한을 없앴으면 하는 의견(9명)이 가장 많았고, 원문 구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6명)이 그 다음으로 많아 전자원문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의견은 목록, 초록, 서론 등 논문의 정보 내용 식별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5명)과 저작권 보호된 논문의 저작권 해제(5명)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설문의 분석에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의견으로는 제공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분야별 통합 관리시스템, 사전 기능, 논문 번역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어디서든 원문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5. 학위논문 서비스 개선 방안

학위논문의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이용자의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위논문 제공처로의 접근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정보제공처에 대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서 공식적인 통로를 강화해야 하며, 각 제공처 간의 공조체제를 통하여 검색의 접근 경로를 통

합하여 유동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접근점의 확대를 위해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위논문 제공처 이용에 있어서는 학위논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상시 이용자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제공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접근 제한을 줄이고, 정보 활용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 창구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위논문의 검색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검색과 함께 자료의 실효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초록, 목차, 본문의 일부 등 내용 파악을 위한 검색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학과나 주제별 검색을 할 수 있게 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 연구 동향의 파악이라는 학위논문 검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근 학위논문을 DB로 구축하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학위논문 목록DB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검색의 최신성을 높이는 것 등이 필요하다.

넷째, 학위논문의 활용에 있어서는 학위논문이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로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전자원문의 공개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공통의 기준 마련하여 학위논문에 대한 입수 및 활용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학위논문의 인용율 조사 및 학위논문 이용에 대한 설문을 통해 학위논문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현 학위논문 이용의 문제를 진단하고 학위논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학위논문 이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학위논문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토대가 되고, 학위논문 이외의 학술지, 보고서 등 다른 학술정보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용자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매년 대량으로 새롭게 생산되는 학위논문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구축하고, 그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일은 학술정보의 가치 증대와 맞닿아있다. 학위논문의 전자화는 웹에서 학위논문에 접근하는 것을 실현함으로써 정보 활용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학위논문을 제공하는 수많은 기관들에서는 1990년대 말 이후 10여 년간 학위논문을 전자화하고 이용자들이 전자학위논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학위논문의 웹 구축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새롭게 변모된 학위논문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용자가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현재 학위논문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학위논문을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학위논문 이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와 현황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학위논문 이용 일반에 대해 살펴보면 이용자들이 학위논문을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논문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으며 전공 영역에 관한 연구와 전공 관련 최근 동향 파악을 위해 대부분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학위논문 제공처의 활용 파악을 위한 부분에서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국회도서관과 RISS에 대한 인지율과 사용률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즐겨 찾는 제공처로는 RISS가 꼽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위논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났다. 5점 척도로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평균 만족도는 2.3으로 다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 피드백이나 도움말 제시의 기능 등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학위논문 제공처로의 접근에 있어서는 도서관이나 이용자의 소속 대학 등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기보다는 지인의 도움이나 인터넷 검색 등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제공과 학교 수업에서 교육 등의 방법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위논문의 검색 부문에서는 이용자들이 단순검색을 가장 선호하였지만 상세검색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학위논문 검색 시 주로 사용하는 항목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서는 키워드를 가장 주요한 접근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두 항목을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제목, 저자 등의 기본검색 항목을 제외하면 키워드, 원문제공 여부, 초록, 학과, 목차 등의 항목을 학위논문의 주요한 접근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위논문의 활용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이 학위논문을 활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저장과 인쇄였으며, 원문 미 구축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활용이 원문 활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원문이 미 구축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절반이 그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전자학위논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전자학위논문이 미 구축 되었을 때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택의 주된 원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위논문을 이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검색은 할 수 있지만 원문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과 원문 검색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학위논문 검색 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학위논문 소장처에 대한 정보 제공과 최근 학위논문에 대한 정보였으며, 이용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포털사이트에서의 논문 검색과 검색 히스토리 기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학위논문 서비스 이용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이용행태 및 문제점 분석은 학위논문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위논문 이외의 유사한 회색문헌인 보고서 등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용자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의 학위논문 서비스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로서, 학위논문 이용행태에서 다양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과 같은 심도 깊은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2003-2007.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2003-2007.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서울: 국회도서관.

김세주. 2007. 『대학 리포지터리를 이용한 학위논문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2005. 전자형태 학위논문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설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63-284.

윤희윤, 김정현, 권희정, 김지홍, 김수현. 2003. 『국내 학위논문 관리의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

윤희윤. 2004a. 국내 학위논문의 표준관리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3): 99-123.

_____. 2004b. 학위논문의 유통현황 및 관리시스템 분석. 『정보관리연구』, 35(2): 1-40.

이석호, 최진석, 이지원, 조재인. 2003. 『학술정보전자자원메타데이터 개발 및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

조인숙. 1993.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4: 205-219.

정동열, 김성희. 2001. 대학학술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47-75.

정동열. 2003.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2): 119-140.

Edminster, Jude and Moxley, Joe. 2002. "Graduate education and the evolving genre of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Computers and Composition*, 19(1): 89-104.